

경영수업을 위한 역량육성형 교수법 개발*

성 행 남**

Development of Teaching Methods for Competency Development in Business Class

Sung Haengnam

〈Abstract〉

It is the approach of development of teaching methods for competency development in business class. This study distinguishes areas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many business subjects. And we derive core competencies from the basic skills of N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have established an opportunity to distinguish the subject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personnel/organization/strategy, production/operation management, marketing, financial/finance/insurance, accounting, MIS). Second, we have proposed guidelines for the setting of the each subject goals and the setting of the professor's competency. Third, we have summarized teaching method which are studied as valid in business class(lecture method, problem based learning method, action learning teaching method, and management simulation teaching method) and we suggested how to apply teaching methods to the each subject.

Key Words : Professor's Competency, Business Class, Teaching Method,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I. 서론

세계화와 국제화, 정보지식화 사회라는 화두로 대두되는 외부 경영환경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구성력의 변화, 노동윤리 가치관의 변화 등의 내적 경영환경은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

고 있다. 단적으로는 어제의 블루오션이었던 니치마켓이 오늘은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경쟁의 심화를 야기하기에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의 정글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역량이 있는 구성원을 채용하여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식정보화 사회란 정보를 활용하여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2536)

**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강사(제1저자)

창출된 지식이 생산성 및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소위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서, 지식과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은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이 된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기반 경제체제에서는 우수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양성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조직이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둘러싼 인재육성 전략이 중요하게 부각된다[1].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임무의 대부분을 학교 특히 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인 교수법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은 교수자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고 활동하여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실천형 역량을 갖춘 수업을 강조되고 있다.

경영학은 본래 조직, 특히 기업 활동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과 예측을 통하여 조직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를 경영학의 주요 대상인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근원적인 목적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영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2]. 그리고 조직체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다루는 경영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당연히 지식을 위한 지식체계를 중시하는 이론과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직체란 급변하는 여건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경영이론은 조직체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실천응용과학이다. 따라서 경영학은 이론적·실천적 학문이라 할 수 있다[3].

한국의 경영대학과 기업 교육기관에 경영교육이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4년제 대학의 경영학과 및 유사전공의 학과, 그리고 기업 교육 담당 경

영교육은 기업이나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관리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관리자를 육성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교육의 목적을 확립하고 경영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4].

이에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션을 확인하고, 경영방침과 경영활동을 확인하고 나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경영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직에서 희망하는 실천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해당 역량을 길러질 수 있는 수업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 수업을 위한 교수자의 교수법 역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II. 연구배경 및 목적

2.1 연구배경

경영학은 조직의 경영현상을 관찰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곳에 존재하는 법칙과 경영원리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진 사실을 경영현장의 실천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학문으로 이론과 실천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은 사회현상과 맞물려 돌아가는 경영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경영학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보다는 특정 상황에 적합한 원리를 찾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적합적 경영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5]. 요즘같이 사회와 기업의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경영학은 이론적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이고 실용적

인 대응이 더욱 요구된다는 의미다.

기업이 사회의 빠른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상황 적합적이고 실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경영학을 가르치는 대학은 학생들에게 경영학적 지식과 함께 다양하고 실무중심적인 역량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경영교육에서 경영인증제 등 다양한 방법의 시도가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식과 역량이 구분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실행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실무형 인재를 원하는 기업의 요구에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역량은 능력과 기능을 합한 개념으로 개인이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위치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 행위, 태도와 지식의 묶음을 말한다[6]. 이미 공학계열에서는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천중이다[7]. 이론적 지식과 체계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도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고 기업들이 달려가고 있는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연구목적

현대의 경영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실무적 역량이다. 다수의 기업에서 실무적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직무적성 검사, 입사 시험 등으로 역량을 측정해왔다. 최근에는 2년제와 실무중심교육을 지향하는 4년제 대학에서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을 도입하여 그러한 기업의 요구에 발맞추고 있다.

아직도 많은 경영학 교육과정에서 강의 위주의 지식전달, 주입식 강의가 많고 정형화된 팀 과제 또

는 현상적으로 나타난 특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사례중심의 교육이 많은 편이다.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을 수행하는 방법론이나 교수법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분 수행되고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교수법이며 경영학의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이 많지 않고 이러한 교수법을 참고하여 자신의 것으로 시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영교육이 현장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식과 역량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인재, 기초직무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경영학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고 해당 영역별 핵심 역량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의 직무기초능력으로부터 도출한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전원이 어떤 방식으로나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실무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다.

2.3 연구범위

한국의 경영대학과 기업교육기관에 경영교육이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4년제 대학의 경영학과 및 유사 전공학과 그리고 기업 교육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영교육은 기업이나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관리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관리자를 육성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교육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경영수업에서 차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영교수법을 도출하여 적용함으로써 경영교육의 내실화와 실무중심적 경영학 인재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국내 경영대학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탐색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문적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전

공을 세분화 하고 각 전공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를 파악하였다. 각 대학별 교과과정을 분석한 다음 경영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교과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수행한 경영학의 각 교과별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의 관련 직무와 그 교과과정의 직업기초능력을 조합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검증되고 있는 교수법을 탐색하고 정리하여 그 특징과 효과를 정리하였다. 다시 해당 교수법들의 집중적으로 탐색한 결과 경영학 분야에서 활용한 교수법을 도출하고 각 교수법을 연구자의 기준으로 정리하여 경영교수법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경영학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직무기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법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운용 가능한 교수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되는 교수법은 실제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원이 스스로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방법에 관련된 기법들을 검토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즉,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과 국내 교수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내 교육실정과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둔 교수법 제안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 또한 국내 경영학 분야로 한정된다.

III. 연구내용

3.1 경영학 교과분야 분류

본래 경영학은 조직, 특히 기업 활동에 대한 과학

적인 설명과 예측을 통하여 조직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기업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다루는 경영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지식을 위한 지식체계를 중시하는 이론과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란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경영이론은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실천적이고 응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학은 이론적·실천적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경영학 관련 수업의 현황분석이 필요하기에 경영학 관련 연구와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영대학에서 교과과목을 탐색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경영학 교과분야 설명 및 교과과목명

	교과분야 설명 및 교과과목명
인사 /조직 /전략	인사조직(HR&OB)은 조직내 인적자원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조직 자체의 특성과 맥락을 다루어 조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추구하는 분야 조직행위, 거시조직이론, 리더십, 윤리경영, 인사관리, 고용관계론, 조직커뮤니케이션
생산 /운영 /관리	기업이 창출해 내는 재화 및 서비스의 설계, 계획, 관리, 그리고 개선에 관계된 이슈들의 분석 및 해결방안을 연구 경영수학, 경영경제, 경영통계, 운영관리, 경영과학, 기술혁신경영, 공급사슬관리, 서비스운영관리, 글로벌 운영전략
마케팅	마케팅은 시장과 그 시장에 존재하는 고객들의 숨겨진 욕구(Needs)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킴으로써 고객 및 기업에게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마케팅원론, 브랜드관리,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마케팅, 소비자행동론, 마케팅리서치, 유통전략, 신제품 개발 가격전략
재무 /금융	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영할 것인지, 기업가치 증대에 상충되는 효과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해야 효율적으로 기업경영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 재무관리, 기업재무, 금융론, 투자론, 선물옵션, 기업 가치평가, 채권론, 금융사태분석

교과분야 설명 및 교과과목명	
회계	기업의 거래 및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치적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업무 수행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 회계원리, 중급회계1, 세무입문, 기업법, 고급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재무제표분석, 중급회계2, 회계감사, 세무회계
MIS	IT기반의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첨단디지털기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
* 10개 대학 중 동국대학교의 교과소개를 중심으로 재구성 * 유사한 교과과목명은 대표 교과과목명으로 표기	

경영학과 또는 경영학부가 있는 주요 국내 대학 10 곳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으로는 2015년 한경비즈니스 전국 경영대학 평가에서 20위에 오른 학교 중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경영교육인증과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인증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2015년 한경비즈니스 전국 경영대학평가에서 20위에 오른 학교를 선정하였다. 그 다음 경영교육인증과 AACSB 인증을 받은 학교 중 교육과정을 공개하고 있는 대학 10 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은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이다. 상기 대학들의 경영학 교육과정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탐색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영학 교육과정에 제시된 세부전공 및 교과를 학문적 분류체계 별로 세분화 하고 각 대학에서 체계 별로 어떤 교과목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2> 경영학 교과분야 설명 및 교과과목명II

교과분야 설명 및 교과과목명	
경영특화 ¹⁾	건국대학교: 선물옵션론, 위험관리론, 환경분석론 경북대학교: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기술사업화론, 창조성관리, 미국상법 고려대학교: 타문화경영, 아시아비교경영론, 국제M&A와 전략적 제휴 동국대학교: 국제경영학, 창업론, 멘토프로그램, 경영사례분석 서강대학교: 창의성과 창의경영, 글로벌통합모듈, 캡스톤디자인 연세대학교: HCI개론, 창조와 혁신 이화여자대학교: 빅데이터분석의 원리와 응용, 핀테크 인하대학교: 혁신관리, 성과관리혁신, 창의적사업계획 개발, 비즈니스모델링 한양대학교: CSR전략, 중국비즈니스론, IT컨설팅과 프로세스혁신
경영일반	경영학 학습에 바탕이 되는 기초 과목

1) <표 1>의 설명이나 교과과목명이 중복되지 않은 교과과목명

연구대상인 10 개의 대학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사/조직/전략, 생산/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금융, 회계, MIS 교과분야를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선물옵션, 타문화이해, 창의성 등의 교과분야는 선택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1> <표 2>). 또, 몇몇의 학교에서는 기업윤리, 보험, CSR, 혁신경영 등의 새로운 분야를 발 빠르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각 세부 전공별 교과목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학교별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교과목 과정이 있었으며, 경영학원론, 경영수학, 경영통계, 회계원리, 경영경제 등의 선수과목과 생산관리론, 경영정보시스템, 재무관리, 회계학원론, 마케팅원론, 조직행동이론, 경영전략시뮬레이션, 국제경영론, 경영통계학 등의 기초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대학 별로 세부전공에 따라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거나, 일부 단일 학과 체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로 나타났다.

3.2 일반적 대학교육 교수법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양적인 면에서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인 면이 양적인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교수법을 들 수 있다. 사회 환경과 교육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 대학의 교수법은 여전히 교수에 의한 일방적인 강의로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수법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의 교육기관에서 대학의 질과 교수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경영학은 경영학의 주요 대상인 기업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맞춰서 경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은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하길 원한다. 따라서 경영교육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문제는 교수와 학생들의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왔다. 교수방법 혹은 교수법이란 교수 및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일부를 의미하는데 6개의 요소(누가, 무엇으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지)로 구성되어있다.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교육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교수법을 정의하는 가장 첫 단계이다.

경영학 교육의 목적은 첫째 구체적 지식과 개념 또는 기법을 이해시켜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영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판단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며, 해당분야의 단순지식이나 기법보

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 네 번째 목적은 인지능력이나 독해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교육을 통해 교정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경영학에서의 교육 목적이다.

3.2.1 교수법 유형

교수법에는 고전적 교수방법, 지력개발 교수방법, 상호작용촉진 교수방법, 공학적 교수방법, 개별화 교수방법, 치유적 교수방법 등의 범위로 구분된다.

고전적 교수방법은 지적 훈련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교과내용 또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며 교수자가 교육내용을 선택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주로 강의법과 발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인 지식이나 개념 또는 기법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학습자들은 수동적이고 순종하는 학습태도를 갖게 되며 교수자들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주안점을 둔다. 교수법은 해당분야의 지식, 개념, 기법 등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강의 방식이지만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발문을 중용하여 그 효과를 높인다.

지력개발 교수방법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데 초점이 맞춰진 교수법으로 지적인 과정의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고력 훈련을 통해 정보수집, 분석, 평가하고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력개발교수방법에는 탐구법과 창의적 사고력 개발방법이 있다.

탐구법은 지식의 구조가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의미 있게 수용병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무엇을 어느나 보다는 앞으로 이르는 능력으로 과정으로서의 지적 기능을 의미한다. 학습내용은 최종형태로 학습자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때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내용을 발견하거나 문제해결을 해 나감으로써 사후적인 내면화를 형성한다.

탐구과정은 문제인식, 문제정의, 가설, 탐색, 증거 분석, 일반화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자는 이 과정에서 코치 또는 중재자의 역할과 동시에 그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여러 장애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 사고력개발과 관련하여 사고 능력의 깊이 에 따라 신념, 기억, 이해, 반성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Harrison and Bramson[11]은 종합적 사고, 이상적 사고, 실용적 사고, 분석적 사고, 사실주의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종합적 사고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추론을 대상으로 하며 갈등, 변화에 관심을 갖고 최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상적 사고는 포용과 타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실용적 사고는 일의 유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구체적이고 유통성 있는 대책을 추구한다. 분석적 사고는 논리적 전개와 연역적 논리로 객관적 문제해결과정을 중시하며 사실주의는 실제 경험한 것을 중요시하고 구체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귀납적 사고과정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력 훈련을 위해 귀납적 교수법, CORT (Cognitive research trust), 유추, 속성열거, 형태학적 분석, 브레인스토밍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시청각 교육 등이 있다.

상호작용촉진 교수방법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이 되고 있는 교수법이다. 이 교수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수법으로 교수자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이 교수법에서는 교수자는 관계형성자, 공

동학습자, 인간조정자 등의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과 간접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소그룹 토의, 발표, 역할연기 등의 방법으로 이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공학적인 교수방법은 공학적인 방법이나 매체들을 교수 학습과정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로 컴퓨터활용 교수법, 프로그램 교수법, 시뮬레이션(실제모의 실험교수법) 등이 있다.

개별화 교수방법은 자아개발이 목적인 교수법이다. 치유적 교수방법은 지각능력 독해에 대한 이상상태 교정 및 진단과 치유 등 학습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으로 교수자는 전문가, 진단자, 그리고 교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학습자 지향의 직접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법으로 행동수정 교수법, 심리치유 교수법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신문을 활용한 교육법이라 불리는 NIC, 역전학습이라고 하는 플립러닝, e-Learning 등이 있다. 신문 활용 교육법은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하여 지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이다. e-Learning 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개인 및 조직의 목적과 연결되는 학습경험과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이다.

3.2.2 교수법 관련 선행연구

이성호[8]가 그의 저서를 통해 교수방법의 범위와 목적을 정의 한 후 많은 연구자들이 인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로 김기영[9]의 연구와 길양숙[10]의 연구가 있다.

김기영[9]은 교수법연구를 경영학교육에 적용하여 제안하였는데, 교수목적, 교수자의 역할, 학습자

의 역할, 교수할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기영[9]은 교수법을 고전적 교수법, 지력개발교수법, 사회적 상호작용촉진 교수법, 치유적 교수방법을 분류하여 연구하였으며 고전적 교수방법으로는 주도적 강의법과 발문적 강의법을 분류하였으며, 지력개발교수방법에서는 탐구법과 창의력 개발법,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시청각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회상호작용촉진교수법에는 소그룹토의법, 발표, 역할연기를 치유적 교수방법으로는 행동수정교수법, 심리치유교수법, 구두표현훈련, 운동지각훈련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길양숙[10]은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교수법을 연구하였다. 길양숙[10]이 제시한 교수법은 설명식 강의인 직접교수법, 문답법, 탐구학습, 협동학습으로 나누고 협동학습은 다시 프로젝트 학습법, 집단탐구, 문제기반학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직접교수법은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설명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 개념을 활용하도록 연습시키는 활동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법이다. 효율적인 직접교수법이 되기 위해 도입, 전개, 정리의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학습활동이 빠진 경우라도, 개념 설명만 있으면 이 범주로 구분된다. 탐구 학습은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사례들로부터 개념이나 원리, 패턴을 찾는 것이 핵심과정인 교수법이다. 문답법은 교수가 개념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학생이 대답을 하면 의도한 개념이나 원리에 근접할 때 까지 문답을 통해 그 의미를 명료화 하는 과정을 가진 교수법이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소집단 별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한 후 교수나 동료학생이 발표내용의 정확성이나 느낌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의문사항을 질문하는 활동이 관찰되는 교수학습활동을 말한다. 소집단 그룹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탐구학습, 집단탐구,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으로 불

린다.

<표 3> 일반적 교수방법

교수 방법	구 분			
	이성호	길양숙	NCS	본 연구자
고전적	강의법	직접교수법		1)강의식 방법
	발문법	문답법		
지력 개발	탐구법 창의력 개발법	탐구학습 협동학습		2)사례연구
상호 작용 촉진	토의법	협동(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학습, PBL	4)액션러닝, 3)PBL(프로젝트 학습)
	역할극	협동 (집단탐구)	역할극	
		협동(문제기반학습)	PBL	3)PBL
공학적	컴퓨터활용 교수법			5)경영시뮬레이션(온라인)
	프로그램 교수법			
	실제모의실험교수법 (시뮬레이션)			5)경영시뮬레이션
개별화	개별화 교수법			
치유적	행동수정 교수법, 심리치유 교수법			
기타			신문활용 교육(NIC), e-Learning	플립러닝

경영사례는 과거 특정시점에서 발생했던 자료들을 기술한 자료이기에 과거의 내용을 현재의 학습이 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경영사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향후 경영자로서 부딪치게 될 미래의 상황을 미리 경영해보는 효과가 있다. 즉 경영자로서 의사결정과정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경영 사례는 각 팀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투입과정과 수집된 자료를 집단내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평가하는 변환과정과 대안들 가운데 최적의 선택을 하는 산출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의 학습과정을 통해 사례학습과정에 적극적 참여, 전문직업 행동 강령의 준수, 사례학습과정의 전념하는 학습강화를 가져오게 된다. 경영사례교육에서 활용되는 사례연구법은 크게 단문의 단축사례, 소사례, 그리고 장문의 케이스를 사용하는 하버드식 사례연구 방법이 있다. 특히 하버드식 경영사례는 경영자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 및 해결에 대한 의사결정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 실제 경영현실에서 경영자가 주인공으로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소재로 구성하고 있다.

3.2.3 경영학 관련 교수법

상기에서 일반적인 교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경영학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학에서 사용된 교수법에는 강의식방법, 사례연구방법, 문제기반 학습방법, 액션러닝방법, 경영시뮬레이션방법, 시청각 방법, 플립러닝방법, 계량분석 방법 등이 있다.

강의식교수법은 길양숙[10]의 연구에서 교수자들의 강의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사례연구 방법은 정동섭[12]이 경영학 교육의 관점에서 사례연구 방법에 대하여 경영사례의 필요성과 경영사례의 학습효과 그리고 경영사례의 종류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문제기반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강병서·조철호[13]는 조사방법론 교과에 접목시켜 연구하였고 김기영·이지은[14]은 국제통상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무역론 교과목에 사례연구와 질적연구를 접목시켜 운영하였다. 김기태[15]는 인적자원관리 교과

에서 사례연구를 통한 문제기반 학습방법을 이용하였다.

김주현[16]은 국제마케팅과목에 사례연구를 류수영[17]은 조직구조론, 인사조직에 사례연구를 통한 문제기반 학습방법을 이용하였다. 백광현·이상호[18]는 IT경영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과 정보기술 교과와 IT튜터링 교과에서 사례연구를 통한 문제기반 학습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하였다. 이외에도 백태영[19], 손정훈·이진화[20], 송승아[21], 한신·일·김혜정·이정현[22], 박예렘[23], 박성은·박진용[24]이 각각 원가자원관리, 경영학원론, 관리회계, 무역상무론, 경제학개론, 경영정보처리학 등의 경영 교과에서 사례연구를 통한 문제기반학습교수법을 이용하였다.

<표 4> 경영학 관련 교수방법I

교수방법			
기존 연구자	교과목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
강의식 방법			
길양숙(2011)			
사례연구 방법			
정동섭(2002)			
문제기반학습 방법			
강병서·조철호(2006)	조사방법론		
김기영·이지은(2011)	국제무역론	사, 질	국제통상학과, 3학년
김기태(2012)	인적자원관리	사	
김주현(2010)	국제마케팅	사	
류수영(2013)	조직구조론, 인사조직	사	
백광현·이상호(2011)	경영과 정보기술 IT튜터링	사	IT경영학과, 1학년
백태영(2010)	원가자원관리		
손정훈·이진화(2014)	경영학원론		
송승아(2015)	관리회계	사	

교수방법			
기존 연구자	교과목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
한신일·김혜정·이정연 (2004)	무역상무론, 경제학개론, 우주론	사	
박예렘(2010)	경영정보처리학	사	
박성은·박진용(2001)			
액션러닝 방법			
고수일·장경원(2014)	인간관계론		
장경원·고수일(2013)	조직행동론		
유재언(2013)	-		
노영(2013)	TBL교과목	사,실	
사: 사례연구, 질, 질적연구, 실: 실증연구			

고수일·장경원[25]은 인간관계론, 장경원·고수일[26]은 조직행동론 교과에 액션러닝 교수법을 활용하였고, 노영[27]은 e-business, 경영전략, 인적자원 관리 교과에서 Team Based Learning을 이용하여 액션러닝 교수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재언[28]은 경영학 교육에서 액션러닝의 유용성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5> 경영학 관련 교수방법II

교수방법			
기존 연구자	교과목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
경영시뮬레이션방법			
김상수·김영천·이지형(2014)	창업		
김상수·최은지(2010)		사	
김상수(2010)		개발	
이재원(2012)		사,선	
박성훈(2003)			
경영시뮬레이션방법(온라인)			
위정현·오나라(2006)	기술경영론	사	중앙대, 2개반 50명
정용준, 김승철(2015)	전략적의사결정, 자금흐름이해	사	

교수방법			
기존 연구자	교과목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
기타(시청각, 영화방법)			
박헌준·Joseph·김상준 (2004)	경영협상	사	
기타(플립러닝방법)			
여은정·김진백·한승희(2015)		사	경영학부 신입생
기타(계량분석방법)			
심선영(2010)	생산관리	실	서울여대
사: 사례연구, 실: 실증연구, 선: 선행연구			

경영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29], [30], [31], [32] [4])도 다수 있는데 위정현·오나라[23]가 기술경영론 교과에서 사례연구를 통한 경영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고 정용준·김승철[34]이 전략적 의사결정, 자금흐름의 이해 교과에서 사례연구를 통한 경영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이 밖에도 박헌준·Joseph·김상준[35]가 경영협상 교과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적용한 시청각 방법, 여은정·김진백·한승희[36]가 경영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플립러닝방법, 심선영[37]이 생산관리 교과에서 적용한 계량분석법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본 경영수업에서 교수법으로 활용될 강의실 방법, 그리고 사례연구 방법 문제기반학습 연구, 액션러닝 방법에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강의식 방법은 이론의 이해와 분석중심의 교수방법으로 개념이론 설명에 수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연구 방법은 특정 이론을 학습한 후, 이론을 활용하여 실제 사례를 분석 또는 해석한다.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있으며 교실수업에서의 원활한 토의를 위한 학생들의 수업 준비차원에서 사례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26]. 또한 잘 구조화된 문제에 알맞은 교수법으

로 이론이나 실체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학습이 가능하며 정리 후 발표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능력과 발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료가 있을 경우 어려움 없이 타인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단점과 과제해결능력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15].

문제기반학습 방법은 교수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구성한 실제 혹은 가상의 상황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며 의사들의 임상추론 과정에 기반하고 문제해결 자체보다는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26]. 이 교수법은 덜 구조화 된 문제 그리고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에 적합하다[15]. 문제에 접근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에서 문제의 변화로 새로운 가설 설정과 많은 토론 과정으로 문제해결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학습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액션러닝 방법은 액션러닝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통한 학습이다. 액션러닝은 실제적 과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자료를 수집, 분석, 적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38]. 즉,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해 성찰을 하며 이를 기초로 학습하며 그 다음단계를 계획하고 다시 경험을 하는 순환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제해결에 참여하는 그룹의 구성원들은 현장을 이해하게 되며 문제해결능력, 협동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3.2.4 역량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 역량

역량(competency, competence)의 개념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39]에서 직업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직업이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지식, 기술, 태도[4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역량이라는 용어는 이외에

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지능(intelligence), 기술(skills), 수행(performance)등의 용어이다. 이들 용어와 역량과의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역량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요구되는 능력이자 복합적인 인간의 자질로서, 특정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능력으로 볼 수 있다[41]. 이러한 역량을 교육에 적용한 역량 기반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식노동자로서, 경제사회의 핵심자원으로서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용공동체나 실천학습과 같이 학습자들이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모델의 적용과 더불어 인적자원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에 의한 교수-학습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42], 효과적인 교수-학습 과정은 무엇보다도 교수자의 교수 역량에 좌우된다고 보고, 교수자 역량[43, 44]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수자 역량의 연구도 수업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해당 교과과목을 수행하여 이수 했을 때, 학습자는 어떠한 역량이 구축 된지 인지하게 된다면 교과과목 완료 후 학습자의 진도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에 경영학 교과과목을 수행 완료시 습득하게 되는 역량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해 알아보자 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럽에서는 산업인력의 현장성 제고와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국가직업능력표준(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시켜 중등교육 이후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도 산업 현장의 지식 및 기술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 개발과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는 국

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개발하여 특정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체계화하고 이를 교육훈련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각 주별로 다양한 직무능력표준(NSS: National Skill Standards)을 개발하여 다양한 직종의 직무수행과 자격증명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45, 46].

이처럼 주요 국가들의 경우 국가직무(직업)능력 표준의 개발은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직업교육과정, 훈련과정, 자격 등의 출제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등 후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자격분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47].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국가조정실의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제안된 후 200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 Sill Standards)을 고용노동부는 국가직업능력표준(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의 개발을 각각 별도로 추진해 왔었다.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부처가 제가기 추진해 온 사업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2010년부터 용어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통일하고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국어 표제어와 영어 표제어로 혼동을 줄 수 있는데, NCS

의 C는 Competency이다. 즉 한국어 표제어로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지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것 마찬가지로 역량, 능력, 지식, 기술, 태도라는 한국어 표제어가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제어인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NCS의 작업기초능력은 작업기초역량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작업기초능력은 특정 직무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단위로 개발 한 것을 말하며, 의사결정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이렇게 10 가지로 구성된다. 이 10 가지 작업기초능력은 각각의 하위능력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면, 이 하위능력은 다시 세부요소들로 표현이 가능하다.

첫 번째 의사소통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로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이다. 의사소통능력은 다시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의 다섯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두번째, 수리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칙연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수리능력은 다시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의 네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세번째, 문제해결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이다. 문제해결능력은 다시 사고력, 문제처리능력의 두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네번째, 자기개발능력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스스

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이다. 자기개발능력은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의 세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다섯번째, 자원관리능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 자본, 재료 및 기술, 인적자원 등의 자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업무 수행에 이를 할당하는 능력이다. 자원관리능력은 다시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의 네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표 6> 경영학 교과분야와 역량

교과분야 대표교과과목 ¹⁾	NCS 직무기초능력											
	의	수	문	자	관	대	정	기	조	직		
인사	조직행위	○		○	○	○	○				○	
	인사관리	○	○	○		○	○	○			○	
생산	운영관리	○	○	○		○	○	○				
	물류관리	○	○	○		○	○	○			○	○
마	마케팅원론	○	○	○		○	○	○			○	○
	광고	○	○	○		○		○	○			
재	재무관리	○	○			○	○	○			○	○
회	회계원리	○	○	○				○			○	
M	경영정보론	○		○		○	○	○	○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관리	○		○	○			○	○			○
특화	국제경영 ²⁾	○		○		○	○				○	
	창업건설 ²⁾	○		○		○	○	○				
일반	경영학원론	○		○		○	○				○	○
	경영통계	○	○	○	○	○	○	○	○		○	○
소계		14	8	13	3	12	11	11	3	10	6	

1) 해당 분야의 전공기초, 전공필수로 명명되는 교과과목
2) 경영특화(기타)에서 임의로 선택한 교과과목

인사: 인사/조직/전략, 생산: 생산/운영관리
마: 마케팅, 재: 재무/금융, 회: 회계
MIS: 경영정보시스템, 특화: 경영특화
일반: 경영일반

의: 의사소통, 수: 수리, 문: 문제해결, 자: 자기개발
관: 자원관리, 대: 대인관계, 정: 정보, 기: 기술, 조: 조직이해,
직: 직업윤리

여섯번째, 대인관계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이다. 대인관계능력은 다시 팀원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의 다섯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일곱번째, 정보능력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의미 있는 정보를 업무수행에 적절하도록 조직하고, 조직된 정보를 관리하며, 업무수행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러한 제 과정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정보능력은 다시 컴퓨터능력, 정보처리능력의 두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열덟번째, 기술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한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이다. 기술능력은 다시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의 세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아홉번째, 조직이해능력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하여 조직의 체계와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다. 조직이해능력은 다시 국제감각, 조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의 네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열번째, 직업윤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만한 작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이다. 직업윤리는 다시 근로윤리, 공동체윤리의 두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3.2.5 경영학 교과분야와 역량과의 관계

상기의 경영학 교과과목 현황(10 개 대학, 7개 교과분야)과 국가직무능력표의 직무기초능력 10 가지의 관계를 <표 6>으로 구성하였다. 10 개 대학의 교과분야는 7개인데, <표 6> 는 8개의 교과분야로 구

성이 되어 있다. 경영일반 교과분야의 대표 교과과목이 '경영학원론'과 '경영통계'는 일급 개 교과분야의 기초중의 기초이며 신입생일 때 필수로 수강하는 교과과목이라서 경영일반이라는 교과분야를 <표 6>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대표 교과과목의 직무기초능력의 지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의 학습모듈의 분야별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교과과목의 직무기초능력을 찾았다. 학습모듈의 분야는 사무관리, 경영 회계 사무, 금융 보험, 등으로 24개의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직무기초능력 10 가지 중에서 의사소통능력(14개), 문제해결능력(13개), 자원관리능력(12개), 대인관계능력(11개) 정보능력(11개), 조직이해능력(10개)가 상위를 점하는 능력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경영학 수업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의 역량을 구축하여야 하며, 산업현장에서 이 역량이 있는 인적자원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현장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표준화 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과 수리능력, 직업윤리능력, 자기개발능력,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2.6 경영학 교과분야와 교수방법과의 관계

(1) 선행연구기반의 경영교수법 도출I

상기의 <표 4>와 <표 5>의 경영학 관련 교수방법을 10 개 대학의 경영학 교과분야별로 관계를 정리하면 <표 8>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교수방법 측면에서 <표 7>을 보면, 강의식 방법은 1편의 선행연구[10], 사례연구 방법 역시 1편의 선행연구[12]이

다. 반면에 문제기반학습 방법은 선행연구가 16편으로 가능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영학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제적 문제를 과제로 선정하여 수업진행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액션러닝 방법은 세 편의 선행연구가 있다. 이 역시 사회의 실제 문제를 과제로 선정하기에 다른 수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표 7> 경영학 교수법

교과 분야	교수방법					
	강의	사례	문제	액션	경영	기타
인사			김기태(2012) 류수영(2013)	고수일, 장경원(2014) 장경원, 고수일(2013)		
생산						십선영(2010)
마케팅			김주현(2010) 박성은, 박진용(2001) 강병서, 조철호(2006)			
재무						
회계			박예람(2010) 백태영(2010) 송승아(2015) 김문수(2011)			
MIS			박혜림(2010) 백광현, 이상호(2011) 고윤정,고일상, 강주선(2006)			
경영특화			김기영, 이지은(2011) 한신일,김혜정, 이정연(2004)	위정현, 오나라(2009) 정용준, 김승철(2015) 김상수, 김영천, 이지형(2014)		박헌준, Joseph, 김상준(2004)-영화 방법
경영일반			손정훈, 이진화(2014)			
미확인 교과과목	길양숙(2011)	정동섭(2002)	한신일, 김혜정, 이정연(2004)	유재연(2013)	김상수(2010) 이재원(2012)	여은정, 김진백, 한승희(2015)-플립드러닝
상이한 교과분야에서 2개 교과과목 연구: 박혜림(2010) 동일한 교과분야에서 2개 교과과목 연구: 류수영(2013), 백광현, 이상호(2011)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경영시뮬레이션 방법은 네 편의 선행연구가 있는데 이 교수방법은 전략설정 및 수행과 경영과 관련된 교과과목[33]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며, 경영 분석 능력과 전략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과과목[29]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교수방법으로 계량분석 방법[39]을 이용한 한 편, 시청각자료인 영화 방법 [35]을 이용한 1편, 그리고 플립드러닝[36]방법을 이용한 선행연구 1편이다.

이제 교과분야 별로 살펴보면, 인사/조직 교과분야는 문제기반학습 방법과 액션러닝 방법이 각 2편의 선행연구가 있다. 특히 인사조직 교과분야는 조직 구성원인 인간에 대한 효율적 관리등을 학습의 내용으로 하기에 문제기반학습 방법의 실제적 문제와 액션러닝에서 말하는 실제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는 수업진행이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산운영관리 교과분야는 계량분석 방법의 한 편의 선행연구가 있다. 마케팅 교과분야는 문제기반학습 방법이 3편의 선행연구를 가지고 있고, 회계 교과분야 역시 문제기반학습 방법에서 4편의 선행연구가 있다. 또한 MIS 교과분야도 문제기반학습 방법에서 3편의 선행연구가 있다. 그리고 경영일반 교과분야는 1편의 선행연구가 있다. 가장 여러 교수법이 사용된 경영특화(기타)는 문제기반학습 방법에 2편, 경영시뮬레이션 방법에서 세 편, 기타 방법에 2편으로 모두 7편의 선행연구가 있다. 아무래도 교과분야가 명확히 정해 진 것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 교수방법이 시도되고 연구된 것 같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문제기반학습 방법이 경영학의 모든 교과분야에 이용 가능한 교수방법으로 볼 수 있다. 생산 운영관리를 제외(재무 금융 보험 분야의 선행연구가 없음)한 모든 분야인 인사 조직, 마케팅, 회계, MIS, 경영일반, 경영특화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액션러닝 방법은

실제 문제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교수방법이기에 향후 선행연구와 경영학 수업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경영시뮬레이션 방법은 시뮬레이션이란 교수법으로 일찍 등장한 교수방법이지만 경영학 교과과목에서는 전략설정이나 현금흐름이해 [34]을 위주로 교수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영 흐름의 이해를 설명하는 경영학원론 교과과목이나 자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회계 교과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교수방법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문제기반학습 방법과 액션러닝 방법을 주축으로 경영교수법의 설정하고 한다.

(2) 선행연구기반의 경영교수법 도출II

교수방법 중 강의식 방법은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교수방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강의식 방법을 경영교수법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강의식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 교수방법은 교수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보다는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수종하는 학습 태도를 갖게 된다. 즉 교수자중심의 교수방법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 교수방법은 해당 분야의 내용 즉 지식이나 개념 및 기법을 이해시키는 강의식 방법이나, 학습자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학생들이 질문하도록 종용하여 그 효과를 높인다. 그리고 강의식 방법은 보통 소극적으로 발문식 방법과 함께 사용이 되는데, 발문식 방법은 그 발문의 목적과 학생들의 지적능력 또는 인식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할 수 있다.

길양숙[10]은 수업진단 프로그램에 지원한 강원대학교 교수 60명을 대상으로 교수방법과 교수행동에 대한 분석을 보고하였다. 조사는 연구 대상자에게 자신의 평소 수업을 50분 정도의 분량으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게 한 후, 두 명의 수업상담자가

그 수업 장면을 보고 분석하는것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의 일부만 촬영된 점과 지원자 대상이라는 한계점 등이 있지만, 조사 결과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강의방법은 직접교수법이 91.7%, 협동학습이 10%, 직접교수법과 협동학습이 섞인 혼합이 5%, 탐구학습과 문답법이 각각 1.7%이이고 계열별 차이도 미미했다. 계열만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10명 중 직접교수법 8명(80%), 직접교수법과 협동학습의 혼합이 2명(20%)이다.

상기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의 수업방법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학교육이 강의식 교수법(길양숙은 직접교수법이라 칭함)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단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대학수업은 '설명(설명하며 판서, 교재 부연설명, 교재 읽기)', '예 제공', '연습 혹은 실험', '과제 발표와 문답', '쟁점 토론', '협동학습', '문답하여 내용 이해 확인', '시청각 자료(PPT나 OHP) 사용'으로 대부분의 수업방법을 기술할 수 있는 듯하다. 수업시간의 70~80% 정도는 '설명'에 사용된다는 보고도 있다[10]. 즉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학교급에 상관없이 강의식 혹은 설명식 수업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적은 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영학 관련 기본 개념이나 원리들의 설명에서는 강의식 교수법이 효과적이라는 반증이라 보여진다. 다시 말해, 경영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80% 이상이 강의식 교수법이기에 본 연구의 경영 교수법 중 하나를 강의식 교수법으로 하고자 한다.

3.2.7 경영 교수법I

강의식 교수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행절차를 가르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입, 전개, 정리의 단계를 따라 수업활동을 갖추는

게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48, 49, 50]. 미국의 보통의 교사들도 50%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이 단계별 행동이 효율적임을 배운 실험집단의 교수들은 80%가 이 수업활동을 행하였다[49]. 하지만, 대학교수들은 어떤 비율로 이런 수업활동을 활용하는 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 듯하다. <표 8>은 강의식 교수법의 수업활동 프로세스이다.

3.2.8 경영 교수법II

상기의 탐색조사와 선행연구 등의 기반으로 문제기반학습 방법과 액션러닝 방법을 두 번째 경영 교수법으로 제시하고, 이 두 교수방법은 팀 활동이기에 팀빌딩은 선행되어야 할 선행활동이며, 팀 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각각의 진행절차로 확인하고자 한다.

문제기반학습 방법의 절차는 문제 제기하기, 문제 파악하기. 학습계획서 작성하기, 주도적 학습 팀 활동하기, 해결책 완성 및 점검하기, 발표하기, 평가하기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액션러닝 방법의 절차는 문제 탐색하기, 문제 명료화하기, 가능한 해결책 도출하기, 우선순위 결정하기, 액션플랜 작성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로 이루어진다.

<표 8> 경영교수법

수업내용	수업활동 [*비교]
도입	출석확인
	(과제 피드백) [*피드백의 소홀이 수업의 질 저하]
	(동기유발)
	수업목표 언급하기
	선수학습내용 개관하기
	수업절차 개관하기-학습과정을 예측토록 하기
	본시 주제를 알리고 흥미유발 활동하기

수업내용	수업활동 [*비고]
전개	개념이나 원리, 절차를 설명하기
	이해에 도움이 될 예시, 시범, 그림이나 동영상 자료 제시하기 [*예시가 적으면 수업의 질 저하]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여부 확인하기 [* 연습문제가 적으면 수업의 질 저하]
	질문을 통해 학생의 참여를 증진하고, 이해여부 확인하기 [* 이해여부의 미확인은 수업의 질 저하]
	복잡한 내용은 작은 단계를 나누어 내용설명-예시-연습활동을 반복하기
	독립적인 연습을 위해서 과제를 제시하기
정리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여 복습이 되도록 하기
	수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길양숙(2011)을 재구성	

박수홍·정주영[51]은 문제기반학습 방법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습할 문제를 학습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문제 파악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학습해야 할 목표를 찾는다. 여기서 학습자는 팀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협력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게 한다. 학습계획서 작성하기 단계에서 학습자는 파악한 문제에 대한 해결안, 알고 있는 사실, 더 알아야 할 것 등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한다. 자기주도적 학습 및 팀 활동하기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다양한 형태로 학습을 한다. 해결책 완성 및 점검하기 단계에서는 팀 토론을 통해 최종 도출된 해결책을 완성하고 점검한다. 발표하기 단계는 최초 해결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는 단계이며,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문제해결 과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자기, 팀, 동료 평가 활동이 이루어지며, 교수자는 문제 개발,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지원활동 등에 대해 스스로 교수자가 평가를 실시한다.

박수홍·안영식·정주영[52]는 액션러닝 방법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제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학습팀이 상황에 맞는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문제를 접한다, 문제 명료화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 상황 안에서 관련 정보를 분석 분류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 및 구조를 이해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 및 구조를 이해하고 문제를 규정한다. 가능한 해결책 도출 단계에서는 명료화된 문제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한다.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도출한 가능한 해결책을 적용할 때 실현가능성, 시급성, 중요성 등의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액션플랜 작성단계에는 문제해결책을 실제 현장에 적용(실행)해 보기 위해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문제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 활동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액션러닝 과정을 성찰하여 수정, 보완, 진행할 점을 파악한다.

IV. 연구결과

지식정보화 사회는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실천력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교육기관은 이 흐름을 부인 할 수 없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이 인재의 배출의 최전방에 대학기관이 있다.

특히 경영학 관련 분야는 사회 환경의 실제 현상과 흐름을 같이 하는 실용실천적 학문에게 다른 학문 분야보다 더 발 빠르게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 할 수 있도록 교과와 교수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연구자는 첫째, 경영학의 교과분야를 인사/조직/전략, 생산/운영, 마케팅, 재무/금융, 회계,

MIS로 나누고 추가적으로 경영일반과 경영특화(기타)로 나누었다. 둘째 경영수업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강의식 방법, 사례연구 방법, 문제기반학습 방법, 액션러닝 방법, 경영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역량을 알고자 NCS 기반의 역량을 찾았는데, 의사결정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이렇게 열 가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넷째로, 상기 언급한 교과분야, 경영 교수방법, 역량의 관계를 설정하여 경영교수법을 도출했다.

경영 교수법은 세 가지 경영 교수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길양숙[10]의 연구를 기반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학교급에 상관없이 강의식 혹은 설명식 수업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적은 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강의식 교수법의 이용이다. 강의식 교수법에 대한 회의들이 있긴 하지만 개념 및 원리 이해 부분에는 확실한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문제기반학습 방법이 경영학의 모든 교과분야에 이용 가능한 교수방법으로 볼 수 있다. 생산 운영관리를 제외(재무 금융 보험 분야의 선행연구가 없음)한 모든 분야인 인사 조직, 마케팅, 회계, MIS, 경영일반, 경영특화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액션러닝 방법은 실제 문제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교수방법이기에 향후 선행연구와 경영학 수업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경영시뮬레이션 방법은 시뮬레이션이란 교수법으로 일찍 등장한 교수방법이지만 경영학 교과과목에서는 전략설정이나 현금흐름이해[34]을 위주로 교수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영 흐름의 이해를 설명하는 경영학원론 교과과목이나 자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회계 교과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교수방법으로 보여진다.

셋째로, 강의식 방법과 문제기반학습 방법 또는 액션러닝 방법의 적절한 혼합이 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 이전 차시에는 강의식 방법을 사용하여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를 중점으로 한 후, 중간평가 이후 차시에 문제기반학습 방법 또는 액션러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해당 교과과목에 적절히 탄력적으로 교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V.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가 있다.

첫째, 경영학의 교과분야(인사/조직/전략, 생산/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금융/보험, 회계, MIS)를 구분하여 경영학을 분야별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개별적인 교수방법을 적용뿐만 아니라, 교과분야별 특징도 인지하게 되었다. 인사/조직 교과분야는 문제기반학습 방법과 액션러닝 방법을 교수법을 적용, 전략관련 교과분야는 경영시뮬레이션 방법 교수법을 적용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학습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영학 교과과목별 배양해야 할 역량 10 가지(의사결정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를 정리하였기에, 각 교과과목별 담당 교수자의 교과목표 설정과 교수자의 교수 역량의 설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셋째, 경영학 수업에 타당하다고 연구된 강의식 교수법, 문제기반학습 교수법, 액션러닝 교수법, 경영시뮬레이션 교수법을 정리하고, 해당 교수법을 교과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를 제시하였다. 경영전반의 개념과 흐름, 원리 이해는 강의식 교수법을 추천하고, 인사 조직 교과분야에는 액션러닝 교

수법을 그리고 경영 전략 구축 및 실행 교과분야에는 경영시뮬레이션 교수법을 선행연구와 탐색조사를 통해 제시하였다. 더불어 한 가지 경영교수법에 의존하지 말고 이들 여러 교수법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용하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교수법을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와 탐색을 했지만, 강의식 교수법을 제외한 다른 교수법의 선행연구가 미미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현재 경영학 수업 관련하여 여러 교수법이 시도되고 있으니, 향후에는 추가적인 선행연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가 있다.

둘째, 경영학에 대한 배경지식은 경영학 전공 교수자가 탁월하겠지만, 교수법이나 교수설계 부분의 교육학이나 교육공학 전공 교수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경영학 전공 교수자의 교수법 제안이 교육학이나 교육공학 측면에서는 이론적 측면이나 설계적 측면에서 부실할 수 있으니, 향후에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해당 부분을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재경,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에 대한 고찰: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정 체계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18권, 제4호, 2002, pp. 25-56.
- [2] 유세준·김의식·이내풍, 디지털시대의 경영학원론, 법문사, 2003.
- [3] 정지원, “한국십진분류법 경영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 [4] 박성훈, “관리능력(Managerial skill)의 학습자 교육은 가능한가? 경영시뮬레이션 교수법을 통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2003.
- [5] Hellriegel, D., Jackson, S. E., and Slocum, J. W., Management : A Competency Based Approach(9th Edition), South-Western Educational Publishing, 2002
- [6] Slocum, J. W., Fundamentals of Organizational Behavior, International Edition, South Western College, 2008.
- [7] 김종화·조성익, “공과대학생의 수학 기초능력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제9권, 제4호, 2013, pp. 111-118.
- [8] 이성호, 교수방법의 탐구, 양서사, 1995.
- [9] 김기영, “우리나라 경영교육의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창립 40주년 기념발표 심포지엄, 1996, pp. 34-50.
- [10] 길양숙, “대학의 수업방법과 교수행동에 나타나는 특징,” 한국교원연구, 제28권, 제4호, 2011, pp.405-428.
- [11] Harrison, A. F. and R. M. Bramson, The art of thinking. New York: Doubleday, 1984.
- [12] 정동섭, “경영사례의 작성 및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제18권, 제2호, 2002, pp. 167-180.
- [13] 강병서·조철호, “경영학 교과목에 대한 웹활용 PBL 방법의 적용과 학습 성과에 관한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2권, 제3호, 2006, pp. 231-257.
- [14] 김기영·이지은, “‘국제무역론’의 문제중심학습

- 설계 및 운영 사례,” 교육방법연구, 제23권, 제2호, 2011, pp. 251-276.
- [15] 김기태, “경영학 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의 설계 및 적용 사례,” 질서경제저널, 제15권, 제4호, 2012, pp. 63-85.
- [16] 김주현, “경영학 교육에서의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 도입 사례,” Korea Business Review, Vol. 14, No. 1, 2010, pp. 1-16.
- [17] 류수영, “경영수업에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사례연구,” 교육공학연구, 제29권, 제1호, 2013, pp. 103-131.
- [18] 백광현·이상호, “전공 교과목 연계를 통한 경영 교육 향상 사례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9권, 2011, pp. 193-200.
- [19] 백태영, “PBL(문제중심학습)의 원가관리회계 교육에의 적용,” 회계저널, 제19권, 제4호, 2010, pp. 61-89.
- [20] 손정훈·이진화, “대학 경영학교육 혁신사례: 피터 드러커를 중심으로,” 창조와 혁신, 제7권, 제3호, 2014, pp. 29-59.
- [21] 송승아, “PBL 방법론을 적용한 영어관리회계수업 사례,” 경영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2015, pp. 569-591.
- [22] 한신일·김혜정·이정현, “한국대학 상황에서의 문제중심학습 적용사례 비교 연구-경영학, 경제학, 물리학 관련과목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2004, pp. 25-53.
- [23] 박예렘, “경영학 문제중심학습(PBL) 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2010.
- [24] 박성은·박진용, “경영학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학습양식이 문제중심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Korea Business Review, Vol. 5, No. 1, 2001, pp. 73-85.
- [25] 고수일·장경원, “액션러닝을 활용한 인간관계론 수업 운영 사례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6호, 2014, pp. 256-281.
- [26] 장경원·고수일, “경영학 수업에서의 액션러닝 적용 사례연구: 성찰저널을 통한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29권, 제3호, 2013, pp. 689-721.
- [27] 노영, “TBL(Team Based Learning) 학습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 관련 과목들의 TBL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제14권, 제5호, 2013, pp. 93-111.
- [28] 유재인, “경영학 교육에서의 액션러닝의 유용성: 자생체계모형(VSM)에 의한 이중 순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012, 제27권, 제6호, pp. 395-418.
- [29] 김상수·김영천·이지형, “창업교육에서 경영시뮬레이션게임의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 pp. 251-281.
- [30] 김상수·최은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경영교육 방법에 관한 사례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60집, pp. 283-309.
- [31] 김상수, “경영 교육을 위한 경영 모의 게임의 활용 방안: 개발 과정 및 교육 방법을 중심으로,” Information System Review, Vol. 7, No. 1, 2010, pp. 41-63.
- [32] 이재원, “경영시뮬레이션게임의 활용실태와 교과모형,”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2012, pp. 73-86.
- [33] 위정현·오나라, “온라인 게임을 활용한 전략경영 교육의 효과 분석- 경영의사결정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전략경영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6, pp. 135-149.

- [34] 정용준·김승철, “참여형 교수법을 활용한 경영 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인사관리학회 및 한국인사조직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pp. 333-358.
- [35] 박헌준·Joseph E, Champoux·김상준, “영화와 경영교육-영화를 통한 협상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04, pp. 568-595.
- [36] 여은정·김진백·한승희, “대학 경영 교육에서 혁신적 교수법 적용에 따른 학습 성과 및 수강생 만족도 분석과 시사점,” Korea Business Review, Vol. 19, No. 4, 2015, pp. 181-202.
- [37] 심선영, “계량 분석 기법을 적용한 경영학 교수법의 효과,” 경영교육연구, 제63집, 2010, pp. 1-33.
- [38] O’Neil, Judy and Marsick, Victoria, Understanding Action Learning,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2007.
- [39] White, Robert W.,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Vol. 66, No. 5, 1959, pp. 297-333.
- [40] International Board of Standards for Training and Performance Instruction[IBSTPI] (2005), Competencies, Retrieved May, 1, 2007, from <http://ibstpi.org/>
- [41] 유성상·이재준·남유진, “역량기반 대학교육 담론의 한계 및 대안의 논의 탐색,” 평생학습사회, 제11권, 제2호, 2015, pp. 21-52.
- [42] 노혜란·류완영, “실천학습에서의 전이 수준과 전이 촉진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제20권, 제3호, 2004, pp. 135-172.
- [43] 노혜란·최미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수 역량(teaching competency) 모델 개발,” 직업능력개발연구, 2004, 제7권, 제2호, 2004, pp. 1-28.
- [44] 이현영·김영수·허희옥, “공과대학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 진단도구 개발연구,” 교육공학연구, 제28권, 제3호, 2012, pp. 439-469.
- [45] 주인중·조정운·임경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의 현황 및 정책방안,” THE HRD REIVEW 2010 AUTUMN, Vol. 13, No. 4, 2010, pp. 17-40.
- [46]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업능력표준 내용분석, 2009.
- [47] 장봉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기술분야 교육과정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IT응용기술전공, 2011.
- [48] Gagne, R. M., Conditions of Learning(3rd edition), Thomson Learning, 1977.
- [49] Good, T. L. and Grouws, D. A., “The Missouri Mathematics Effectiveness Project: An Experimental Study in Fourth-grade Classroom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1, No. 3, 1979, pp. 355-362.
- [50] Hunter, M. and Russell, D. Increasing Your Effectiveness, The Learning Institute, 1981.
- [51] 박수홍·정주영, 술술 풀리는 PBL와 액션러닝(2판), 학지사, 2014.
- [52] 박수홍·안영식·정주영, 체계적 액션러닝, 학지사, 2010.

■ 저자소개 ■



성 행 남
(Sung Haengnam)

2004년~현재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2009년 2월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 박사)
2003년 2월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 석사)
2000년 8월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 학사)

관심분야 : 경영정보시스템, 전자상거래, e러닝,
교수법
E-mail : haena@gnu.ac.kr

논문접수일 : 2017년 08월 11일
수정일 : 2017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8월 28일